

주요 투자은행의 세계경제 및 주요국 성장률 전망

(2022.9월말 기준)

정예지 | 연구원(3705-6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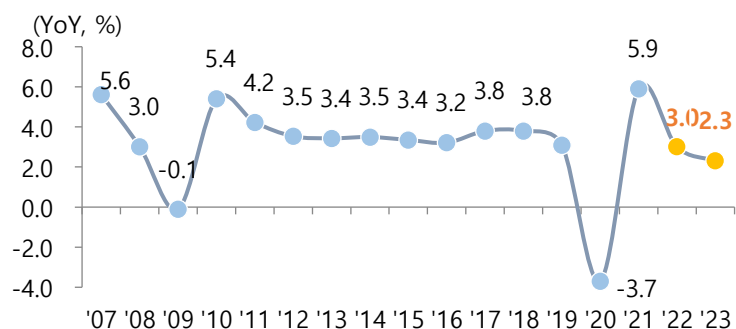
박미정 | 부전문위원(3705-6210)

-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으로 글로벌 경기침체 혹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 다만 내년 중국의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경우 세계경제 하락세를 부분적으로 완화할 소지(Citi)
- **미국(·):** 고용과열 부분 완화(8월 구인율 6.2%, 전월비 -0.6%p) 불구 근원 PCE(8월 +0.7% m/m, +4.9% y/y)의 컨센서스(+0.5% m/m) 상회 등 여전히 높은 물가 감안시 연준의 고강도 긴축기조 지속 전망(Barclays)
 - 긴축적 금융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물가에 따른 소비심리 약화 △고금리로 인한 투자 감소 △소비 둔화, 고비용, 강달러의 산업 부문 영향 등으로 경기둔화 가속 우려(Nomura)
- **유로존(+0.3%p ↑):** 라우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 및 에너지물가 위기 심화로 소비자신뢰지수(9월 -28.8, 전월비 -3.8pt) 역대 최저치, 실물지표(7월 산업생산 -2.3%, m/m) 악화 등 경기침체 가능성 확대(23년 성장률 -1.1%, Barclays)
 - 경기침체 우려에도 고물가(9월 물가상승률 10%, y/y)로 ECB의 긴축기조는 유지될 전망(Goldman Sachs)
- **중국(+0.3%p ↓):** 9월 Caisin PMI 전월비 하락(49.5 → 48.1) 등 대외수요 약화에 따른 수출 둔화가 가시화된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 및 봉쇄령 재연, 폭염가뭄, 부동산 부문 악화 등으로 금년 성장전망을 하향(3.5% → 3.3%, Citi)
 - 다만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방역 완화, 추가 경기부양책, 부동산 시장안정 등에 따른 반등 기대
- **일본(+0.3%p ↑):** 종합 PMI(9월 속보치 50.9)의 확장국면 진입, 소매판매(8월 +1.4% m/m)의 증가세 등 내수 회복이 예상되나 주요국 경기하강에 따른 해외수요 둔화 등이 하방요인(22년 성장률 1.2% → 1.6%, 23년 1.5% → 1.5%, Nomura)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기관명	2022 ^f	2023 ^f
Barclays	2.8	2.1
BNP Paribas	3.0	3.0
BoA-ML	3.4	2.3
Citi	2.9	2.1
Goldman Sachs	3.2	2.5
JP Morgan	3.3	2.3
Nomura	2.8	1.6
UBS	2.9	2.5
평균	3.0(0)	2.3(-0.3)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 전년대비, 구매력평가 (PPP)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각각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 ^f	2023 ^f
	22.3Q	22.4Q	23.1Q	23.2Q		
Barclays	0.5	0.0	-0.5	-0.5	1.5	-0.2
BNP Paribas	-	-	-	-	1.7	1.0
BoA-ML	1.0	0.5	-1.5	-1.5	1.6	-0.6
Citi	1.8	2.1	1.3	0.4	1.8	0.7
Goldman Sachs	0.9	1.0	0.8	1.0	1.7	0.9
JP Morgan	2.0	1.5	1.0	0.8	1.8	1.0
Nomura	0.4	-1.4	-1.6	-1.6	1.4	-1.1
UBS	0.9	1.0	0.7	0.4	1.7	0.6
평균	1.1(0.1)	0.7(0.1)	0(-0.6)	-0.1(-0.7)	1.7(0)	0.3(-0.4)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 ^f	2023 ^f
	22.3Q	22.4Q	23.1Q	23.2Q		
Barclays	0.5	-2.7	-2.9	-1.3	3.1	-1.1
BNP Paribas	-	-	-	-	2.8	0.3
BoA-ML	0.1	-0.9	-1.3	1.4	3.0	0.3
Citi	0.5	-2.6	-2.8	0.6	3.1	-0.4
Goldman Sachs	0.7	-1.5	-2.2	-0.3	3.2	-0.4
JP Morgan	0.5	-1.8	-1.0	2.0	3.2	0.4
Nomura	0.4	-2.0	-3.2	-2.4	3.1	-1.6
UBS	-0.2	-0.6	0.3	2.1	2.9	0.8
평균	0.4(0.4)	-1.7(-0.2)	-1.9(-0.8)	0.3(-0.7)	3.1(0.3)	-0.2(-0.6)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 ^f	2023 ^f
	22.3Q	22.4Q	23.1Q	23.2Q		
Barclays	2.5	3.0	3.2	6.7	2.6	4.5
BNP Paribas	-	-	-	-	3.0	5.3
BoA-ML	(16.1)	(8.5)	(5.0)	(4.2)	3.5	6.0
Citi	3.3	4.6	5.2	9.8	3.3	6.1
Goldman Sachs	3.5	3.3	2.9	6.2	3.0	4.5
JP Morgan	(9.5)	(5.2)	(5.5)	(4.0)	3.0	4.6
Nomura	2.6	2.8	2.3	6.2	2.7	4.3
UBS	2.6	3.0	2.4	6.7	2.7	4.6
평균	2.9(-0.7)	3.3(-0.7)	3.2(-0.7)	7.1(-1.1)	3(-0.3)	5(-0.5)

* 분기별 전망은 전년동기대비, ()는 전기대비 연율. 평균은 전기비연율 값을 제외하고 계산.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평균의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

	분기별				2022 ^f	2023 ^f
	22.3Q	22.4Q	23.1Q	23.2Q		
Barclays	1.6	1.4	0.8	0.7	1.6	1.1
BNP Paribas	-	-	-	-	1.5	0.9
BoA-ML	2.7	1.5	0.6	-1.7	1.7	0.5
Citi	1.5	1.6	1.6	1.1	1.5	1.4
Goldman Sachs	2.2	2.0	1.4	1.3	1.7	1.7
JP Morgan	2.0	3.5	2.0	1.2	1.8	2.0
Nomura	1.0	4.2	0.4	0.5	1.6	1.5
UBS	0.0	3.4	1.4	1.2	1.5	1.6
평균	1.6(-0.4)	2.5(0.3)	1.2(0.2)	0.6(-0.4)	1.6(0.3)	1.3(0.2)

*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 연도별 전망은 전년대비 기준. 붉은색, 파란색은 전월 전망치대비 상승, 하락을 의미. 괄호는 전월 전망치대비 변화분(%p)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6 혹은 yjjung@kcif.or.kr, 홈페이지: www.kcif.or.kr